

수학여행 버스 '도우미' 동승을

사고 예방·문화 해설·일자리 창출 효과

정부·교육청 지원 절실

수학여행 시즌마다 반복되고 있는 수학여행 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스 내 수학여행 도우미를 탑승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버스 기사의 피로를 덜어 안전 운행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유익한 역사 관광해설을 제공하고 불경기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것으로, 정부나 교육당국의 관심이 절실하다.

15일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올 4월부터 10월 중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은 287개 초·중·고에서 5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대부분 경주를 비롯한 서울, 강원 등 주로 버스를 이용한 국내 수학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버스 이동시의 안전 확보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순천에서 수학여행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 경기도 안산시 모 중학교 학생 22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으며, 지난해 5월엔 순천 모 고교 학생 2명이 제주 수학여행 도중 버스 사고로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수학여행 버스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수학여행 버스의 사고는 대부분 버스 기사의 운전 부주의가 가장 큰 것

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운전기사의 피로누적이 주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수학여행 버스는 차량 내의 소란 등으로 운전기사의 주의력이 현저히 분산되기 일쑤며, 연일 계속되는 무리한 일정으로 피로가 가중된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호소다.

이 때문에 여행업계에선 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을 보조하고, 차량 내부를 통솔하며 체계적인 문화 관광해설을 도맡을 도우미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수학여행 도우미 제'가 현실화될 경우 학생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정부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에서 수학여행 버스만 10년동안 운전했다는 한 기사는 "아무리 운전의 답인이라해도 소란한 아이들을 태우고 하루 12시간씩 안전 운전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면서 "예전처럼 운전기사를 앞에서 도울 수 있는 도우미를 확보한다면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에 수학여행을 계획중인

광주 모 중학교 교장은 "경기 침체 때문에 수학여행을 떠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을 위해 도우미 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경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우미 한명당 1일 8만~10만원에 달하는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예산 문제가 관건"이라면서 "교과부에 건의하는 등 해결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자전거 타면 건강해져요" 자전거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 등 160명이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자전거 운동 선포식'을 가진 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임낙평 대표, 5월단체 회원들에 폭행 당해

'옛 도청 별관 철거' 놓고 시민단체·5월단체 대립 격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추진위원이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인 임낙평씨가 13일 전남도청 별관 철거 반대를 주장하며 농성 중인 (사)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일부 5월 관련단체 회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1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에 따

르면 임낙평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5월 관련단체 회원 수명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

임씨는 지난 14일부터 광주 8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5월 관련단체는 그동안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임씨는 옛 도청 앞 철거에서 농성 중인 (주)로케트전기 해고 노동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이번 일로 시민단체와 5월 관련단체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

을까 우려스럽다. 모든 것을 시민단체 협의의 측에 맡겼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5월 관련단체 관계자는 "옛 도청 별관 앞에 있던 일부 유족회원들이 별관 철거를 찬성해온 임 추진위원을 보고 우발적으로 실랑이를 벌인 것 같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유감표명 등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내부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5월 관련단체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초미니' 장흥법원의 서비스

판결문 알기 쉽게 양형 사유도 밝혀

전국에서 가장 작은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무변촌(無辯村·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장흥지원에 따르면 '무변촌'인 장흥과 강진지역 주민들의 법률 소외감을 덜고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사 무개선방안'을 시행 중이다.

장흥지원의 개선방안은 ▲주요 재판 매주 개정(開廷) ▲형사사건 판결문의 수정 ▲모든 형사판결문에 양형이유 기재 ▲형사공판사건에 국선변호인 선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형사사건 판결문의 변화다. 기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권위적인 주문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는 식으로 바꿨다.

또 금고형 이상의 형사 판결에는 반드시 양형 사유를 밝혀 자신에 대한 형벌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판사의 주문을 듣게 된다.

장흥지원은 또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대했다. 장흥지원은 법원이 위치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장흥지원은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건에는 무조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했다.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민사사건에서도 돈이 부족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이도록 했다.

최인규 장흥지원장은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지원은 판사 3명, 직원 30명의 초미니 법원으로, 1909년 11월 '광주재판소 장흥구 재판소'로 출발한 이후 올해 11월로 개원 100년을 맞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장흥=김홍기기자 kykim@

나원침 (7753) 김장동



목포 2인조 택시강도 검거

목포경찰청은 15일 승객으로 가담해 영업용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박모(51)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3일 밤 10시25분께 목포시 산정동 모마트 앞길에서 이모(52)씨의 영업용 택시에 탑승 한 뒤, 이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8만7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축의금 천여만원 가로챈 '형제 도둑'

○광주의 한 예식장에서 혼주 친척 행세를 하며 축의금 수천만원을 사습적으로 가로챈 용감한(?) 형제가 경찰에 달미. ○광주서부경찰청은 15일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정모(54)씨와 정씨의 동생(42) 등 2명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달 14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예식장에서 정씨는 축의금 봉투를 받고 동생은 금액을 축의장부에 적는 등 혼주 김모(56)씨의 친척인 척 하며 축의금 1천300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의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성상납' 인사 줄소환 예고

경찰 '장자연 문건' 확보 조사 나서

경찰이 지난 7일 자살한 텔런트 장자연의 심경이 담긴 문건을 확보함에 따라 성상납 강요 등 소문으로만 떠돌던 여배우와 관련된 연이연의 추문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기 분당경찰청은 15일 "장자연의 '심경문건'에 폭행, 술자리·성상납강요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절대반은) 몇명의 실명이 거론돼 있다"며 "필적 감정을 통해 장자연이 작성한 것인지 확인한 뒤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장자연이 "(기획사로부터) 어느 감독이 골프하러 올 때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다"는 고백과 함께 "절대해야 할 상대에게 잡자리를 강요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문건에 장자연의 지장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어 자신의 심경과 관련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 27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장자연의 전·현 소속사 등 8곳을 14일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문건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혀 문건에 거명된 '유력인사'들에 대한 줄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문건에 적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연이연에게 전방에 걸쳐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휴뉴스

Advertisement for Sasa (SASA) featuring a group of people and the text "OPEN 축하한/경/관/대!".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locations.

Advertisement for Kwangju Woori Credit Union (광주원광신협) offering a loan of up to 2,000 million won for business owners. It includes details about interest rates and terms.